

신안군 인구소멸 대응 교육·복지 시책 확대 나선다

'1섬 1뮤지엄'·'1섬 1정원화' 등 효과 지난해 인구 0.5% 늘어 경기 연천·강원 인제·강릉 등 찾아 다양한 선진 정책 벤치마킹

'1섬 1뮤지엄' (미술관), '1섬 1정원화' 등을 인구소멸 극복 방안으로 내건 신안군이 이번에는 교육 복지 시책도 들여다본다.

신안군은 이달 초 이를 일정으로 경기 연천군과 강원 인제군, 강원 화천군, 강릉시 등 교육·복지·문화예술 선진지를 찾아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고 9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지난해 '1섬 1뮤지엄', '1섬 1정원화' 등 여러 시책을 벌인 결과 인구가 늘어난 인구감소지역 9곳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 인구는 3만8037명으로, 전년보다 0.5%(179명) 늘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증가세다. 전남 인구는 1년 새 181만7697명에서 180만4217명으로, 0.7%(-1만3480명) 줄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를 필두로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신안 대표단에 합류했다.

방문단은 교육과 돌봄, 주거, 문화예술 등 다양한 시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배웠다.

우선 경기 연천군의 김장곤 조각가 작업장을 방문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았다. 이곳은 다양한 정원 조성고 조정 기술 등이 어우러진 장소다.

방문단은 이어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도서관, 남면북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 도서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독서 모임, 어린이 창의력 개발, 디지털 자료 활용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도서관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체험했다.

신안 대표단은 최상기 인제군수와 도서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운영 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튿날에는 강원 화천군 커뮤니티센터와 화천 학습관을 찾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교육지원 정책을 살펴봤다. 대표단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식을 보고 센터 주요 시설들을 견학했다. 지기선 화천 부군수는 커뮤니티센터 성공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화천 학습관을 찾아서는 강원 화천군의 대학 등록금 100% 지원, 거주공간 지원금(월 최대 50만원), 재능개발지원금(연 200만원) 등 정책을 살펴봤다.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강릉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솔솔미술관을 방문했다. 이곳의 운영 방식과 전시 기획, 방문객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자치단체 문화예술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들여다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견학을 통해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신안군도 이 같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가 이끄는 신안 방문단이 지난 2일 인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아 최상기 강원 인제 부군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신안군 제공>

완도 편백숲 산림공원 '어싱로드' 황토길 520m 조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이 가용리 편백숲 산림공원에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인 '어싱 로드(Earthing road)'를 조성했다.

'어싱 로드'는 맨발로 숲길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행위를 뜻하는 '어싱(Earthing)'과 '길, 로드(Road)'의 합성어다.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배출, 불면증 개선,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를 즐기는 '어싱족' 열풍이 불고 있다.

완도군은 완도를 가용리 산 214-1번지에 있는 편백숲 산림공원을 숲길 재구성 등을 통해 총 520m의 맨발 걷기에 좋은 황토 흙길을 조성했다. 기존 숲길에 조성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편백나무 사이로 다양한 난대 활엽 수종과 맥문동, 수국 등 초화류들이 북적 구조로 식재돼 사계절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며 지역민들에게 많이 찾는



완도군 가용리 편백숲 산림공원에 조성된 맨발로 걷기 좋은 '어싱 로드'가 조성됐다. <완도군 제공>

는 산림 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과 관광객이 편백숲에서 힐링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공간을 확충하고 해양치유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대학생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구성

11월까지 온라인 감염병 예방 활동

목포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감염병 예방 소셜미디어(SNS) 서포터즈'를 꾸렸다.

감염병 예방 홍보단은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홍보단은 지역 6개 대학 학생 30명으로 구성했다. 목포시는 앞서 지역 6개 대학과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간호학과 학생 위주로 홍보단 추천을 받았다.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는 온라인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홍보단은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받고, 목포시는 우수 활동자에게 목포시장 표창을 줄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SNS 서포터즈가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창구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영암 산모·신생아에 고향사랑 기부하세요"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마련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의 하나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정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지난해 목표 모금 금액 50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추가 모금을 벌이기로 했다.

기부금은 오는 2027년 영암에 문을 여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인 의료기기 구매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 폭이 넓어졌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내걸고 고향사랑기부부를 권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지정기부가 가능해졌다. 영암군은 기부자들이 특정 목적과 가치에 투자하는 지정기부제도의 도입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구해왔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제도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근거로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는 한 달간 1억 7000만원 넘게 모금했지만, 목표액 2억2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지정기부가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정부 부처 등의 우려가 나와 이 모금은 한 달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모금과 추가 모금액을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수 장비를 사들일 방침이다. 저출력 심장중격기과 비접촉식 수면 생체 신호 감시 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을 통하거나 전국 농·축협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정 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아빠와 특별한 여행"...해남군, 22~23일 '땅끝아빠캠프'

아빠와 자녀만의 특별한 여행 '땅끝아빠캠프'가 오는 22~23일 1박 2일간 두륜산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땅끝아빠캠프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고 아빠와 자녀들 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캠프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놀이), 모험 항공가티셔츠 만들기 등 참여 행사와 아빠와 함께 요리 만들기, 아이를 알아가는 보드게임과 육아 상담, 명랑 운동회, 두륜산 케이블카 체험 등이 운영된다.

토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사진작가가 자녀와의 행복한 모습을 순간 포착해 액자에 담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5세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20가족으로, 아빠와 자녀만 참가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순위 처음 참가, 2순위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해남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61-530-5597)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키농작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6월호

2024년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위기 넘자! 전통시장의 변신

쇼핑더하기 관광, 체험콘텐츠 경쟁

MZ들의 놀이터, 이 시장 어디?

문화기획자의 전통시장 살리기 체험

에향 초대석

이금이

“우리 시대 독자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겠다”

에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⑥

문화시인으로 살아가기②

소중하게 키워온 '아날로그 사랑'

광주극장을 지키는 사람들

홍남의 누정⑩-광주 만취정

푸르른 지조 지켜온 대학자 심원표 선생의 우뚝함 담은 정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⑧
광산구 비아와 침단
막걸리 목 축이고, 과학기술 키우고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대중의 물결과 스크린 독점 사이... 또 한 번 천만관객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③

'송나미'라 불렸던 문인화가 사호 송수면

문화 화제 - 사진으로 만나는 2024 호남예술제

세계 무대 빛날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④

민화의 세계에 폭 빠지는 공간, 강진 한국민화뮤지엄